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 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움을 넘어 (Design By Self)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2

동아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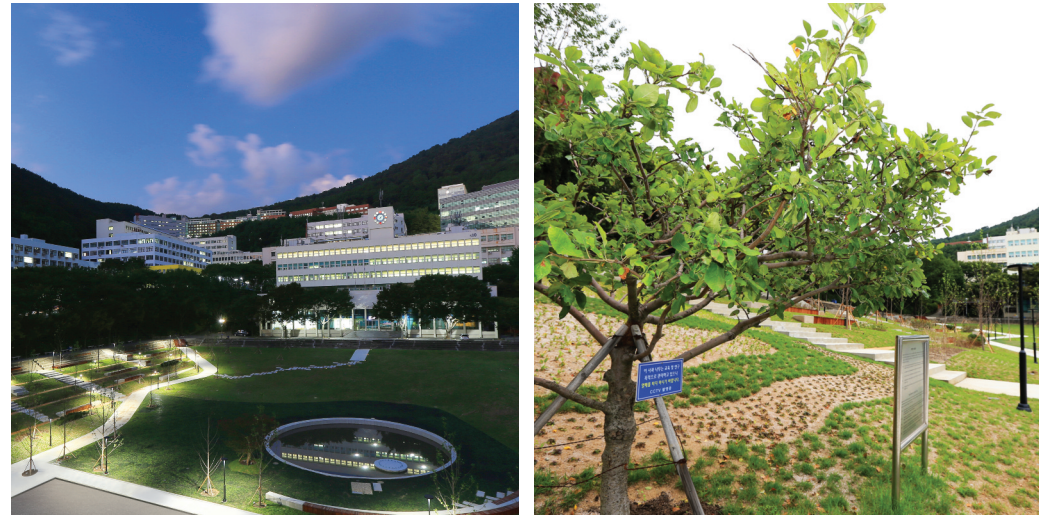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늘 도전하고,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동아대학교 112번째 소식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이 조성됐다. 공원 입구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과나무의 4대 손이 자리하고 있다. 수년간 준비를 거쳐 이곳은 잔디마당과 못, 산책로, 정원, 체육시설 등을 갖춘 대학의 '시그니처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학생 및 교직원,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 및 광장으로 활용되는 등 승학캠퍼스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뉴턴의 사과나무 뉴턴(1642~1727)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미국 국립표준국으로부터 이 나무의 3대 손을 기증받아 4대 손을 접목해 키운 후, 지난 2006년 과학 관련 연구 목적으로 동아대에 기증했다.

- Dong-A People**
- 04 신정택 제35대 총동문회장(세운철강(주) 회장) _ "20만 동문의 가슴에 새삼 뜨거운 불을 붙이고 싶다"
 - 06 이선우 응용생물공학과 교수 _ 끈기가 길어 올린 과학적 성취
 - 08 LG트윈스 투수 이정용 동문 _ 동아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서다

- Issue Focus**
- 12 동아, 세계와 지역 손맞잡고 변화를 주도하다
 - 16 동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등불을 켜다

- Hot News**
- 20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석당학술상 등 시상
 - 21 동아대 야구부, 35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
 - 22 신정택 제35대 총동문회장 취임
 - 22 김신 전 대법관·김제경 동문 석좌교수 부임
 - 23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 'CK-1 사업단 종합평가' 1위
 - 2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주년 기념식
 - 24 이학기·서권일·박종환 교수, 국무총리 및 장관 표창장 수상
 - 25 이선우·조완섭·김경태 교수, 국내외 주목받는 연구결과 발표
 - 26 이훈상·최우용·이동규 교수, 학술상 수상
 - 27 임선희 교수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 부산 R&D 대상·최우수상 수상
 - 28 패션디자인학과, 각종 공모전과 학술대회 맹활약
 - 29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동아인 저력 발휘
 - 29 임규완 선수, 전국장사씨름대회 역사급 1위 탈환

- Happy Donation**
- 30 발전기금·기부현황
 - 40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 42 '후원의 집' 소개
 - 43 기부안내 및 납부 방법



소식지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세리프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이다. 페노는 일정한 굵기 대신 굵고 가는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는 지금 · Dong-A Now

동아대학교 소식지 (통권 112호)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인 한석정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홈페이지 www.donga.ac.kr / www.fund.donga.ac.kr
 기획·디자인 (주)GMK커뮤니케이션 051)322-0815



“20만 동문의 가슴에 새삼 뜨거운 불을 붙이고 싶다”

신정택 제35대 총동문회장(세운철강(주) 회장)

지난해 12월, '동아대학교 총동문화 창립 69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에서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이 제35대 동아대학교 총동문화장으로 취임했다. 동아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MBA)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신 회장은 지난 1978년 세운철강(주)을 창업, 지난해 7,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철강회사를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지역사회를 돌보는 리더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신정택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기부 시작이었다.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신 회장의 의지는 고향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 등에게 이어졌고 최근까지 동아대에도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신 회장의 집견실에는 '대리개세(大利益世)'라는 사자성이 걸려있다. '큰 이익을 얻어 세상을 덮으라'는 뜻이다. 신 회장은 이를 '큰 이익을 얻어서 나누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동아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일 것

신정택 동아대 총동문화장을 칭하는 말들은 다양하다. 40년 역사의 중견기업 세운철강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 '동아대학교 총동문화 창립 69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에서 제35대 총동문화장으로 취임한 신정택 회장(왼쪽 네 번째)

회장을 연임한 지역 상공계 거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나눔 전도사, 소외계층·다문화 가정·비행 청소년의 어둠을 밝혀주는 사회운동가... 그런 그가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사회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20만 동문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기고,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직 동아 동문 특유의 드높은 자긍심과 애교심을 바탕으로, ‘동아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동아대의 기라성 같은 동문사회에 대한 자긍심이 깊다. 올해로 70주년, 그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동아대 동문회는 여러 위기와 기회를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남다른 자긍심과 애교심, 뛰어난 결속력이 있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동아대 특유의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모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동아와 동아인의 꿈과 미래를 믿고 있다. 모교가 많은 우수인재를 육성하며 ‘한강이남 최고 사학’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힘을 보탬 생각이다.”

동문사회의 플랫폼 역할

그는 새로운 동아 전성시대를 꿈꾸고 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듯 모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재학생과 20만 동문이 화끈하게 하나로 더 소통하고, 더 단합하며 함께 뛰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동아의 빛나는 전통을 위해 후배들도 모교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동아동문 모두가 함께 뭉쳐, 공감하고 결속하는 동문회를 만들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진다.

우선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지원, 모교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다지는 일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총동문화가 날로 제 기능을 강화하고 동문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문회의 역량을 키울 소통강화 방안과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도 착착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그는 총동문화 창립 70주년을 맞아 20만 동문의 열정과 애교심에 불을 지필 기념사업도 잘 치를 계획이다. 이런 구상을 성실히 실행하며, “20만 동문의 가슴에 새삼 불을 붙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지난한 세월을 스스로의 정신과 마음가짐, 철학으로 무장해 고난을 이겨낸 신정택 회장. 끝없는 나눔과 모교에 대한 사랑이 동아 100주년을 기약하는 역사적 디딤돌이 되길 바라본다.



끈기가 길어 올린 과학적 성취

응용생물공학과 이선우 교수

그동안 식물병리학에선 식물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식물 내 저항성 유전자가 각종 저항 물질을 만든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동아대 이선우 교수 연구팀은 토마토 풋마름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토마토 뿌리 근처 토양의 특정 미생물이 풋마름병의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됐다.

식물바이옴 연구의 신기원을 열다

식물병은 주요 작물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대기근을 불러오기도 하는 등 큰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식물의 병 저항성'에 대한 연구는 근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번 이선우 교수 연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식물바이옴(phytobiome) 연구의 '신기원'이 열렸다. 연세대 김지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병 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와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번 연구는 메타유전체 분석과 미생물 배양 및 효능 검정을 통해 '병 저항성 식물에서 번성하는 특정 미생물(일명 '보디가드 미생물')이 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결과다.

이선우 교수

- 2015. 농촌진흥청 '우장춘 프로젝트' 사업 선정
- 2012. 한국식물병리학회 젊은 식물병리학자상
- 2008.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 2005.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 교수 임용
- 1999. 미국 미생물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들여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토양과 식물 주변의 생태환경은 지구상의 그 어떤 환경보다도 미생물 군집이 다양해 이를 분석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할 당시 연구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연구의 특성상 농장에서 토마토를 키우면서 계속 뿌리 주변의 흙을 획득하고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야만 했다. 어느 해는 토마토 품종의 종자가 모자라서 순수한 종자를 얻는 데에만 반년을 보내기도 하고 목표로 하는 미생물 후보를 수백 군주 검정하면서도 후보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아 애태우기도 했었다. 초기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문을 제출했을 때는 번번이 논문 게재가 거절돼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두 실험실의 연구원들이 받는 심적 부담도 상당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연구원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후속 실험을 통해 논문 심사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보고한 미생물들은 모두 식물의 친환경적인 생산에 활용할 수 있고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 친환경적 식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를 함께한 연구원들



성실함으로 오롯이 한길을 걷다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팀과 연합해 이루어졌다. 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전 동아대 연구실에서 예비결과를 가지고 검정할 가설을 설정했고 미생물 유전체 분야의 전문가를 모색하던 중 연세대 김지현 교수가 관심을 보였다. 이선우 교수 연구팀이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면 이를 김지현 교수팀이 생물정보학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는 일종의 핑퐁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식물과 미생물 실험은 동아대에서, 대용량 유전체 분석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다. 다른 두 분야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토의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위해 매진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탁월한 학문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으로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교원에게 수여하는 석당학술상을 받기도 한 이선우 교수. 앞으로 식물 주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식물을 건강하게 하고 토양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을 계속 양성하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이다.





동아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서다

LG트윈스 투수 이정용 등문
(태권도학과 15학번)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체격이 작아 투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심각한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뒀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그를 이제 누군가는 신데렐라라 말한다. 지난해 6월 25일, 2019 프로야구 1차 지명 행사에서 대학선수로 유일하게 프로구단의 입단 지명을 받은 동아대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 이정용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졸 야구선수, 바늘구멍을 통과하다

“고교시절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대학에 와서 꽃을 피워 늦게 주목 받은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원동력이 된 것 같다.”

그의 소감대로 그는 유소년 시절부터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 성남고 야구부 2학년 때는 172cm의 키와 55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선수였다. 3학년 때 투수로 등판했지만 한 경기 출전해 1.2이닝만 던지는데 그쳐 큰 기대를 가질 수도 없었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동기들은 속속 프로로 선발돼 갔지만 팔꿈치 미세골절 부상을 입은 그를 스카우트 하는 팀은 없었다. 대학으로 눈을 돌린 그에게 전통의 강호 동아대가 손을 내밀었다. 동아대 야구부는 야신 김성근 감독과 지난 시즌 한화의 돌풍을 일으킨 한용덕 감독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이다.

이정용 선수

- 생년월일 : 1996년 3월 26일
- 신장, 몸무게 : 186cm, 85kg
- 출신교 : 영일초 - 성남중 - 성남고 - 동아대
- 포지션 : 투수(우투좌타)
- 소속 : LG트윈스
- 2019년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
-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학 후 이정용은 반전을 이뤄냈다. 우선 키가 181cm에서 186cm로 자랐다. 몸무게도 68kg에서 85kg으로 늘었다. 하드웨어가 탄탄해지자 130km 중반대였던 최고 구속이 150km대까지 올라왔다. 성적도 수직상승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학리그에서 13경기(47이닝)에 등판해 5승 3패 평균자책점 2.11(피안타율 0.135)을 기록했다. 탈삼진은 65개나 잡았다. 그를 지명한 LG트윈스는 이정용에 대해 “빠른 볼의 구위와 제구력, 다양한 변화구, 위기관리 능력을 고루 갖춘 투수로 1군 무대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투수”라 평가했다. 2019 프로야구 1차 지명에서 고졸투수의 절대적인 강세 속에 이정용은 유일한 대졸투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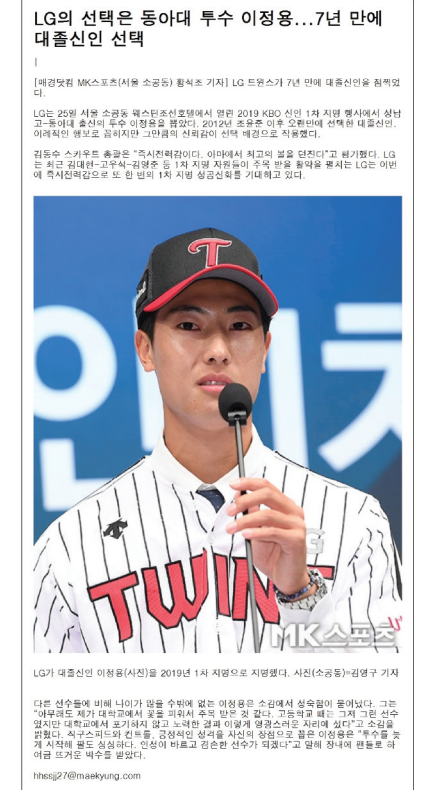
가장 힘든 순간, 손을 내민 곳

2014년, 프로 진출이 좌절된 그에게 유일하게 손은 내민 곳이 동아대였다. “부상은 입었지만 충분히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구 폼을 갖고 있어 성공을 확신하고 스카우트 했다.”는 이재현 동아대 야구부 감독은 이정용 선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나고 자란 서울을 벗어나 동아대에 터를 잡으면서 이정용은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야구공을 잡는 순간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부모님과 떨어진 객지생활, 숙소생활로 몸 관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코치와 감독의 조언을 단 한 번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특히 체격을 불리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동아대 코칭스태프를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다.

“처음 입학했을 땐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할 수 있었다. 4년간 부산에서 지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고 생활도 너무 익숙해졌다. 동아대가 지원도 좋고 무엇보다 훈련이 체계적이고 관리도 잘 해주셔서 기량이 많이 상승했다.” 그의 말대로 이정용은 3학년 때 명실상부한 동아대 에이스로 올라섰다. 팀 내 뿐 아니라 대학야구 전체를 놓고

매일경제 2018년 06월 25일 (월) 스포츠



봐도 손꼽힐만한 많은 이닝인 81과 1/3이닝을 소화했으며 4.11의 방어율과 82개의 탈삼진을 슈아냈다. 3학년 때 활약으로 이정용은 대만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승선하게 됐다. 생애 첫 국가대표 선발이었다. 4학년 때는 기량이 더 향상돼 1점대 초반 방어율과 0점대 WHIP 그리고 1할도 안 되는 피안타율로 서울 3개 구단 스카우터들의 집중관심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의 활약으로 동아대가 35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다.

이정용은 대학무대에서 겪은 4년의 경험이 야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언급한다. 훌륭한 감독과 코치, 좋은 선배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따뜻한 부산의 정을 느꼈다고. 이 선수의 아버지는 “전통의 명문인 동아대에서 거뒀하신 덕분에 정용이가 많이 발전했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며 정신력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정용은 이제 동아대를 제2의 고향이라 여긴다.



멈추지 않는 선행

이정용 선수는 지난해 11월 동아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향 서울 구로구에 500만 원, 모교 영일초등학교에 1,000만 원도 기부했다. 기부한 총액만 3,500만 원으로 2019시즌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사회와 학교에 환원한 것이다. 이정용의 신인 입단 계약금은 2억 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프로구단과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가장 먼저 모교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지난해 1차 지명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에 모교에 감사를 표하고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부를 거듭한 이유를 묻자 “부모님 영향이 컸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묵묵히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값진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이정용 선수는 시대가 원하는 지덕체를 갖춘 진정한 체육인으로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좋은 생각, 긍정의 힘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정용 선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답한다. “내가 내 세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과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대 야구부에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멘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그 누구보다 정신력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늦은 프로 입단에 대한 우려에 그는 “고졸들에 비해 나이는 있지만 투수는 늦게 시작해 팔은 썩는다.”며 웃음을 보인다.

그는 “대학 동기들이 열심히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하지만 내가 프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야구팬들이 대학야구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졸업하고 나면 동아대가 많이 생각날 거라는 이정용 선수. 앞으로도 부상 없이 오래오래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이 목표라고 한다. 그의 몸은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초등학교 5학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하지만 성장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야구를 대하는 그의 성실함은 ‘이정용’이라는 세계를 좀 더 넓고 여유롭게 만들었다. 앞으로 그의 세계는 얼마나 더 넓어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매력적인 야구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인가. 이번 시즌 LG트윈스에서 이정용 선수의 존재감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이유 있는 기대를 가져본다.

동아대 야구부 주요 연혁

- 1948년 지방대학 최초로 야구부 결성
- 1954년 제1회 대한학생야구대회 우승
- 1955년 제2회 대한학생야구대회 준우승
- 1955년~1957년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우승
- 1956년 전국도시대학대회 우승
- 제3회 대한학생야구대회 우승
- 1960년 경남야구협회대회 우승
- 1962년 추계 전국대학연맹전 우승
- 1971년~1972년 전국체육대회 2연패
- 1978년 전국체전 우승
- 1979년 전국야구선수권 우승
- 2016년 한국대학야구연맹회장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
- 2018년 전국체전 우승

*현재까지 전국대회 우승(36회)과 준우승(22회) 기록



동아대 야구부 하면 우수한 역사와 위대한 선수 및 감독들이 거쳐 간 것으로 유명한데요, 동아대 야구부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우리 야구부의 자랑거리라면 학생-코치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단합, 또 전통 있는 야구부의 일원이라는 선수 개개인의 자긍심, 학교의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5년 만에 우승을 해서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시즌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요?

올해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팀워크가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이전의 경기를 분석해보니 중요한 순간에 실책으로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올해는 가진 능력을 100프로 발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선수들끼리 팀워크를 잘 맞춰 실책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코치진들은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 컨디션 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동아대 야구부의 목표가 있다면요?

물론 우승이지요.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학교 야구부를 많이 알리고, 동아대 야구부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많아지는 것, 프로로 취업하는 선수,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선수 등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야구인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다
동아, 세계와 지역 손맞잡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시대 변화가 빠르고 급격할수록 최고 지성인 대학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대학교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대의 요구에 앞장서왔고 현재도 변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단지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며 세계와 호흡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아대는 오늘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명문사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

동아대엔 지난해 말 현재 세계 35개 나라에서 온 8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등으로 수학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진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로 동아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동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세계 우수 대학들과의 각종 교류협정 체결이다. 현재까지 32개국 261개 대학 및 기관과 각종 교류협정을 맺은 동아대는 올해도 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아세안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에 중점을 뒀 '글로벌 동아'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대만의 13개 대학 관계자로 구성된 '대만고등교육방문단' 30여 명이 부민캠퍼스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사우스웨스턴오�클라호마주립대학(SWOSU)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학술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2018학년도 2학기 SWOSU 최초 교환학생이 동아대에서 유학 중이며, 동아대는 현재 재학생 3명을 SWOSU에 파견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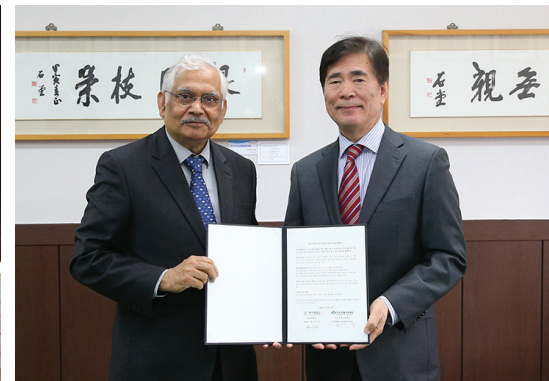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국립경제서비스비즈니스대학과 교환학생·복수학위 프로그램 등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양국 교류에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대학을 비롯 중국 복단대학과 중국전매대학 총장 대표단들이 부민캠퍼스를 방문, 다각적인 교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외 자매결연 대학 현황 (32개국, 261개 기관)

그루지아	1	몽골	2	영국	6	캐나다	4
네덜란드	1	미국	37	이탈리아	1	키르기스스탄	1
뉴질랜드	2	미얀마	1	인도	3	태국	3
대만	12	베네주엘라	1	인도네시아	26	터키	4
독일	7	베트남	10	일본	42	프랑스	4
라오스	1	스페인	1	중국	60	핀란드	1
러시아	1	싱가폴	1	카자흐스탄	2	필리핀	7
말레이시아	3	아일랜드	2	캄보디아	2	호주	12



▲ 한석정 총장과 송씨원 중국 청도농업대학 총장 (2018. 6. 19.)



▲ 한석정 총장과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2018. 12. 10.)



▲ 한석정 총장과 리홍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참사관 (2018. 9. 5.)

글로벌인재 성장을 위한 서포터즈

동아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인적 인격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글로벌인재’로 키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국제교류처는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공식 서포터즈 ‘데일리(DAILY, Dong-A I Love You)’를 중심으로 문화체험과 학습, 홍보 등 세 분과로 나눠 외국인 유학생 입국과 정착, 학업지원을 돕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각종 버디·멘토 등을 통합해 지난해 3월 출범한 ‘데일리’는 농촌문화 체험과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비정상회담, 글로벌 프렌즈, 새해소망편지 및 소원등 만들기 행사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운영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선 동아대는 유학생 담당 부서인 국제교류과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 협정을 맺고 있는 대외협력과, 현장실습과정 주관부서인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지원실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협업해 유학생들의 현장실습과견을 성사시켰다.

실제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3명이 부산의 호텔과 국내 굴지 여행사에서 프론트오피스 업무 및 마켓 분석과 예약지원 업무 등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동아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동아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지원, 취업 지원 등 ‘글로벌인재’ 배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외국인유학생 체육대회 ‘글로벌 스포츠 데이’



지역 발전과 지역 기업의 성공을 잇는 디딤돌

대학은 기술혁신 선도와 미래사회 주도형 인재양성 못지않게 지역의 발전과 지역기업 성공을 직접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도 부여받고 있다. 동아대는 창업지원단과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선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진출 해외 마케팅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수출 상담회에선 모두 1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10월엔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국가 대학과학기술원과 산학협력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특구 내 거점대학의 혁신 인프라와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창업아이템 발굴과 검증, 투자 등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또 링크플러스 사업단 등은 중국 절강후곡자산관리유한회사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지난해 9월 체결했다. 이 MOU 체결로 동아대 학생창업자들이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조성됐으며 판로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됐다. 이 밖에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7년 부산시와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주관한 ‘유학생 연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무역사절단’ 활동에서 중국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김재일 창업지원단장과 이홍강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국가대학과학기술원 국장



▲ 동아대 개교 72주년 석당박물관 특별전 ‘근대-그 새로운 시대’를 관람하는 시민들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동아대는 지역 및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교육·문화·경제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흐르는 통일의 기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한석정 총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부산통일교육센터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난해 10월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부산시민과 탈북민, 동아대 교수 및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부산통일교육센터 통일문화축제 및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통일센터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 특강으로 이뤄진 ‘통일열차 리더십 아카데미’도 10주간 진행했다.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근대 -그 새로운 시대’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선 대한제국 수립 시기인 1897년부터 석당박물관 건물이 한국전쟁기 임시수도정부청사로 사용된 1953년까지의 근·현대기 작품 중 석당박물관 소장품과 부산박물관 유물 10여 점 등 70여 점이 엄선돼 공개됐다. 특히 특별전에선 ‘근대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자금을 모으며 힘들게 투쟁한 반면, 황실에

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신문물을 향유했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석당박물관은 또 ‘보존처리 유물 공개전-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 기획전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최, 동아대 학생과 부산시민 단체관람객 등 800여 명이 보존과학으로 재탄생한 유물을 생생히 체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뿐이 아니다. 동아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부산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학술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특히 ‘피란수도 부산과 먼구름 한형석의 자유아동극장’은 독립운동가 먼구름 한형석(1910~1996) 선생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청소년을 문화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1953년 서구 부민동에 설립한 자유아동극장(색동야학)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피란수도 부산’에 대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피란수도의 부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를 조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과학대학과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15일 ‘2018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학 콘서트’와 ‘9th 가을편 2018 DONG-A 인문학 콘서트’를 열었다. 동아대 학생과 시민 등 400여 명이 복도까지 자리를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정재서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이훈상 동아대 사학과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의 깊이 있는 인문학 강좌가 펼쳐졌다.

동아, 등불을 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난 2017년 세계경제포럼이 '앞으로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선언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통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코티칭(co-teaching), 융합인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지식중심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곧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아대는 한 강의실에서 교수 여러 명이 함께 수업하는 이른바 '코티칭(co-teaching)' 과목을 지난해 2학기 처음 개설했다. 분자유전공학과(정호원)와 화학공학과(김점수), 국제무역학과(오지영), 기초교양대학 글쓰기과정(곽은희) 등 전공이 다른 4명의 교수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강의를 한 것. 동아대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강의는 '거대한 전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중점교양과목으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지식을 통섭해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과목은 흥미로운 주제와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신규 개설에도 불구하고 7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의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였다. 그간 국내 대학의 '팀티칭'은 같은 학과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강의하는 수준에 그쳐 '이름만 팀티칭'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반면 동아대는 교수들이 매 수업에 함께 들어가 학생들과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미국 하와이대를 비롯한 해외 명문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코티칭과 같은 방식이다.

융합과 토론이 함께 이뤄지는 지적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학문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코티칭은 강의실의 미래, 교수법과 대학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동아대 최초 코티칭 과목인 '거대한 전환' 수업



강의 대신 원하는 프로젝트를 설계, 도전학기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과제를 한 학기 동안 수행해 학점을 얻는 프로그램인 '도전학기제' 프로그램도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도전학기제는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사제도로 기존의 정형화된 학제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그룹이 직접 설계한 도전 과제를 실행해 재학기간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과제의 영역 제한은 없으며, 각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도전할 수 있는 과제라면 신청 가능하다. 도전학기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도전 과제 실행 지원금과 교내외 전문가의 맞춤 지도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도전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완료한 과제는 단편소설 창작과 팟캐스트 제작, SNS 메신저 이모티콘 개발, 정원 설계, 사찰 건축과 불화 연구, 도시재생 프로젝트, 미세먼지 마스크 개발 등 다양하다. 도전학기제는 학생 개개인의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해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지도받을 수 있고, 자발적 프로젝트 구성과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도전학기제 수행과제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제7회 로봇융합페스티벌'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4명도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팟캐스트 방송 콘텐츠 4개를 제작, 지역 카테고리에서 조회수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도전학기제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미래성장 동력이 되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동아대는 현장적응력이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꾀하고 있다. 대학의 체질을 산학협력선도형 대학으로 바꾸려는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현장실습지원센터가 개최한 '2018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학부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기획·제작해 시제품이나 설계서, 조사보고서, 시연 및 전시 등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실무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동아대는 지역상생 산학협력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8학년도 DA-LINC+ Fair & 청년 창업 페스티벌'도 이러한 취지로 지난해 10월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학발전이 곧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유가치를 창출한 고도화된 산학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SMART Food 실버 기능성 디저트 전시', '도시문화재생 플랫폼 성과전시 및 VR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초중고 연계 창업프로그램인 '쇼미더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개최,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이 참여한 단계별 창업아이템 릴레이로 동아대만의 차별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2018 DA-LINC+ Fair에서 선보인 식품영양학과 '기능성 실버디저트'



창의적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불을 밝히다

대학은 교육과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행하는 최고 교육 기관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동아대는 창의적인 연구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았다.

응용생물공학과 이선우 교수팀은 지난해 10월 연구진의 협업과 끈질긴 노력으로 식물바이옴(phytobiome)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 '병 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와 기능'을 처음 밝혀낸 것. 'Rhizosphere microbiome structure alters to enable wilt-resistance in tomato'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 판 아티클 논문(매우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게재됐으며, 지난해 11월호에 실렸다. 국내외 특허 출원을 한 것은 물론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우장춘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연구비 50억 원을 지원 받기도 했다. 독창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수상도 있었다. 서권일 생명공학과 교수가 오이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 개발 등 공로로 '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장관상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실험을 통해 오이가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찾아내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상품화했으며 이 상품은 현재 '천지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 교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



김경태 동아대 분자유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식물 기관에서 생장과 노화를 결정하는 스위치 유전자의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낸 논문을 권위 있는 학술지인 '뉴 파이롤로지스트'에 게재했다. 이는 식물 잎 기관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된 두 발달단계인 생장과정과 노화과정 간의 분자적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된 방사성 오염물질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팀이 인체 내부로 유입된 방사성 세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안정적인 생체 제염제를 개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이번 연구로 방사성 세슘이 자연계로 방출되는 등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 박은주 교수와 이신영 교수도 한국 의류 산업학회와 포르투갈 의류기술연구센터 공동주관으로 포르투갈에서 열린 '2018 SFTI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학술대회에서 박은주 교수는 'SNS 기반 온라인 패션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신영 교수는 '시선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인지 과정 분석 결과'를 발표해 수상했다. 이 교수는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는 '2018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과정 개발 및 융합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수상으

로 우리 학과 교수진의 IT융합 연구 성과 및 학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종환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교수(의예과 겸직)는 '2017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자로 뽑히기도 했다. 한국대만 국가 및 지역성을 고려한 고령자들의 거주지 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과 좌식시간 관계를 연구, '사회과학 분야 우수사례'로 지난해 11월 선정된 것.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박 교수는 정책 기반 환경적 접근과 거주지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증대방법을 도출,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래형 인재로 거듭나는 동아인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창의적이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뛰어난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 등이 그 것. 동아대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협업능력 등을 과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을 통한 인재 발굴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2018 TRIZ 창의문제해결 전국경진대회'에서 동아대 학생들이 대상과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계공학과 4학년생으로 구성된 'Umbrella' 팀이 환경 오염문제 해

결을 위한 '비닐봉지 없는 우산달이 설계'를 주제로 6가지 해결방안을 발표,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남부발전(주)이 주최한 '미래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선 기계공학과 4학년 추동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발전소 내 가상현실(VR) 기술 적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VR 기술을 안전 강화 교육과 직장 내 교육, 발전소 견학 프로그램 등 남부발전 여러 업무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도 되고 있다. 동아대는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과 창업 상담, 교육 등 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동아대 창업동아리 'P&B' 대표 윤치영(화학공학과) 학생이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도전 K-스타트업 연계 트랙' 부문에 선정됐고, 창업동아리 '삼이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각각 4,300만 원과 5,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신소재공학과 김이주·박진우 학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 '컬처팩토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컬처팩토리'는 인지능력 분석이 가능한 치매예방 브레인 피트니스 기기(제품명 '화이트박스')를 제조하는 아이템을 제출했다.

▼ 2018년 하반기 재학생 주요 수상 내용

대 회	수상학생	주 제
TRIZ 창의문제해결 전국경진대회 대상·동상	문성배 외 3명(기계공학과) 한교범 외 5명(전기공학과)	비닐봉지 없는 우산달이 설계 무단횡단 방지시스템
미래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추동진(기계공학과)	발전소 내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사)미래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영휴 우수 논문상	초운용 학생(기업재난관리학과 학연실험동석사)	미래재단 주요 키워드 추출 연구
KIPA-KAPS 정책연구 발표대회 우수상	이영웅 학생(기업재난관리학과 학연실험동석사)	정보중심접근법 적용한 재난대응 네트워크 연구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외	박재형(산업디자인학과)·최영현(건축학과)의 7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놀이터 디자인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장려상	동아리 '동아자동차연구회'	포물리(Formula) 부문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외	우지음(산업디자인학과)	아래 형태가 동일해 어디든지 세울 수 있는 '물병'
제7회 로봇융합페스티벌 우승	정영효 외 5명(전자공학과)	지능형 SoC 로봇 워
한국외류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정임주(의상섬유학과 석사)	해양용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창업동아리 'P&B' 대표 윤치영(화학공학과)	동영상 크리에이터 유통 플랫폼 개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창업동아리 '삼이일체' 팀(국제무역학과·신소재공학과)	캡슐형 향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창업기업 '컬처팩토리'(신소재공학과)	치매예방 브레인 피트니스 기기

▼ 왼쪽부터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김백영 변호사, 한석정 총장,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



▲ 왼쪽부터 송기훈 교수, 한석정 총장, 이선우 교수



▲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동아대 야구부

01 개교 72주년 기념식 개최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석당학술상 등 시상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식’이 지난해 10월 31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석정 총장은 “교육부 2주기 대학역량평가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제교류 부문 등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개교 100주년을 대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도 많은 동문과 교직원들이 성원을 보내주는 등 동아대학교가 저력을 발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상승일로에 있다.”며 “앞으로도 동아대학교는 패기와 교양을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서부산 지역 부흥에 앞장서는 등 지역에 봉사하는 명문 사학으로 그 아성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자랑스러운 동아인상과 석당학술상, 공로상, 30년·20년 근속상, 모범직원상, 동아미래인재상 등 기념표창 시상과 72년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탁월한 학문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으로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교원에게 수여하는 석당학술상은 이선우 응용생물공학과 교수와 송기훈 의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박은경 인문과학대학장(고고미술사학과 교수)과 홍순구 기획처장(경영정보학과 교수)은 각각 교육부 ‘대학 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유치’와 ‘자율개선대학 선정 및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기여,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학의 미래를 빛낼 학생에게 수여하는 ‘동아미래인재상’의 주인공은 관광경영학과 이영훈 학생과 전자공학과 정한규 학생으로 결정됐다.

02 동아대 야구부 35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

동아대학교 야구부가 부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남자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동아대 야구부의 이번 전국체전 우승은 지난 1983년 제64회 대회 우승 이후 35년 만이다.

1948년 창단 이래 그동안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대회를 석권한 전통의 강호인 동아대 야구부는 유독 전국체전과는 인연이 쉽게 닿지 않았지만, 이번 우승으로 그동안의 ‘전국체전 갈증’을 말끔히 해소했다.

동아대 야구부는 단국대(충남)를 5대 0으로 제압한 예선경기를 시작으로 준준결승전에서 건국대(충북)에 3대 2로 신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전에선 동국대(서울)를 7대 1로 가볍게 이겼고, 결승전에선 강릉영동대(강원)를 상대로 12대 2 대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전북 익산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는 하형주 예술체육대학장과 신기옥 스포츠단장 등 동아대 교수와 직원,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이 단체응원을 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현 감독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축제처럼 즐기며 열심히 해 준 선수들 덕분에 금메달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며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준 대학본부와 매 경기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지도해주는 코칭스태프, 늘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선수들을 훈련장에서 학교까지 이동시켜주시는 셔틀버스 기사님께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03 총동문회 정기총회 신정택 제35대 총동문회장 취임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대히 개최된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창립 69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에서 제35대 동아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엔 제종모 제34대 총동문회장과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대표, 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윤준호 국회의원 등 동문 및 한석정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만 동아인이 일어나 힘을 모은다면 동아대가 명실상부한 전국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오신 훌륭한 분을 총동문회장으로 모시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 총동문회 발전과 동문들의 단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경영학석사(MBA) 학위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신 회장은 지난 1978년 세운철강(주)을 창업, 지난해 말 기준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세운철강을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철강기업으로 키워내는 ‘철강 외길’을 걸어왔다.

▼ 신정택 제35대 총동문회장(왼쪽)과 제종모 제34대 총동문회장



04 김신 전 대법관·김제경 동문 석좌교수로 부임

동아대학교는 뛰어난 업적을 보인 저명인사를 석좌교수로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 2018학년도 2학기엔 김신 전 대법관과 김제경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대법관은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이로써 동아대는 조무제 전 대법관에 이어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를 보유하게 됐으며, 법제처장 출신인 제정부 석좌교수까지 재직하고 있어 ‘법 실무’와 ‘법 행정’의 대가들이 직접 로스쿨 원생들을 지도하며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태권도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을 2연패, ‘태권도 전설’로 불린 김제경 동문은 국군 체육부대 코치와 삼성에스원 태권도단 선수 겸 코치를 역임하고 은퇴 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해 왔다. 김제경 석좌교수 합류로 예술체육대학 또한 하형주(1984년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학장에 이어 2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재직하게 됐다.

▼ 왼쪽부터 김신 전 대법관, 한석정 총장, 김제경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05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 ‘CK-1 사업단 종합평가’ 1위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단장 김도훈)이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특성화사업(CK-1) 종합평가’ 결과,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동남권 비공학계열 11개 사업단 중 1위로 A등급을 받았다.

생명산업사업단은 지난 2014학년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며, 2015학년도 평가에서는 우수한 운영 결과로 사업비를 연속 지원 받은 바 있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자유전공학과와 응용생물공학과는 동남권 유일 생명산업 분야 특성화학과로, 각각 ‘바이오엔지니어링’과 ‘바이오비즈니스’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합 연계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산업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특성화 사업단의 인재양성로드맵을 기초로 실험실습, 국외 인턴 및 교환학생, 어학, 캡스톤디자인, 인문소양 독서 및 강연, 각종 특성화 동아리, 실무형 강좌 등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김 단장은 “사업 초기에 특성화 기반 구축과 강화에 주력했던 우리 사업단은 이후 특성화 심화를 목표로 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왔다.”며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한 우리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생명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생명산업사업단 소속 분자유전공학과·응용생물공학과 학생들



06 ‘부산지역 최초 창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주년 맞아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옛 신문방송학과)가 지난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재학생과 교수, 동문 등 모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엔 학과 창립의 장본인이었던 ‘영원한 스승’ 김민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의 축전을 비롯, 드라마 ‘정도전’ 등의 작가인 정현민 동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난 1987년 10월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모토로 부산지역 최초로 신설, 1988년 40명의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상당수 동문은 전국의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포털, 광고회사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주년 학술행사의 백미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부울경 에디션’이었다. ‘미디어오늘’ 주최로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가 이날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돼 큰 관심을 받았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생들이 제작한 학과 홍보영상



07 이학기·서권일·박종환 교수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와 업적으로 정부 표창을 잇따라 받았다.

이학기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최 '제14회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0여 년 째 동아대에 재직하고 있는 이 교수는 건축시공 및 사업관리 영역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건축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인 점과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왕성한 학술 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건축시공 및 사업관리 분야 저서 7권과 SCI논문 포함 70여 편의 논문 게재, 100여 편의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했다. 또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장과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 및 영남지회 회장을 역임, 부울경 지역 창조적 건축디자인 창출과 '건설사업관리(CM)제도' 국내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권일 생명공학과 교수는 오이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 개발 등 공로로 '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실험을 통해 '오이식초'를 섭취하고 운동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내 축적된 피로 물질 농도가 40% 이상 낮고, 지구력은 1.56배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이를 주원료로 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상품화했으며 이 상품은 현재 '천지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측은 "오이를 이용한 발효 원액 제조를 통해 오이의 저장성이 향상되고 잉여 오이의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표창 수여 이유를 밝혔다.

박종환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교수(의예과 겸직)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자로 선정돼 지난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국·대만 국가 및 지역성을 고려한 고령자들의 거주지 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과 좌식시간 관계를 연구, '사회과학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박 교수는 정책 기반 환경적 접근과 거주지 특성에 따른 신체 활동 증대방법을 도출,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령화 선도 특성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대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는 동아시아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박 교수 주도 아래 진행 중이다.



▲ 이학기 건축공학과 교수(오른쪽)



▲ 서권일 생명공학과 교수(오른쪽)



▲ 박종환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교수(왼쪽)

08 이선우·조완섭·김경태 교수 국내외 주목받는 연구결과 발표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진행한 '신개념'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응용생물공학과 이선우 교수와 최기혁 연구교수를 비롯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연세대 김지현 교수(시스템생물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병 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와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번 논문은 지난해 11월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온라인판 아티클 논문(매우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게재됐다. 또 국내외 특허 출원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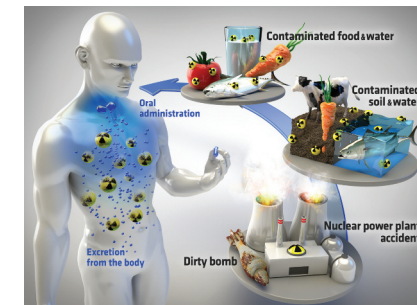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메타유전체(metagenome) 분석과 미생물 배양 및 효능 검정을 통해 '병 저항성 식물에서 번성하는 특정 미생물이 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빅데이터 기반의 신개념 연구결과다. 이는 친환경 농약과 비료 개발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과 바이오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팀은 인체에 유입된 방사성 세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독성을 유발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체 제염제를 개발했다. 조 교수팀은 인하대 허윤석 교수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창현 박사팀과 공동으로 진행,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s)에 지난해 8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방사성 세슘이 자연계로 방출되는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유입된 방사성 세슘을 빠르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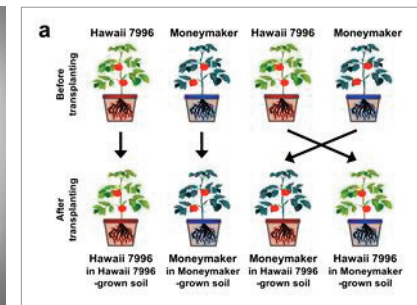
조 교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 관심사 중 하나는 누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2차 사고로 인해 인체 내부로 유입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체 제염제 개발"이라며 "특히 '방사성 세슘'은 반감기가 30.2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출을 유도해 제거해야 한다."고 이번 연구 배경을 밝혔다. 김경태 분자유전공학과 교수 연구팀(전상은, 황지영 박사)은 우혜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식물 기관에서 생장과정을 지속할지, 노화과정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스위치 유전자의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에기장대 앞의 성장과 노화를 중재하는 PLATZ 전사율'이라는 제목의 김 교수팀 논문은 식물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뉴 파이톨로지스트(New Phytologist)' 지난해 10월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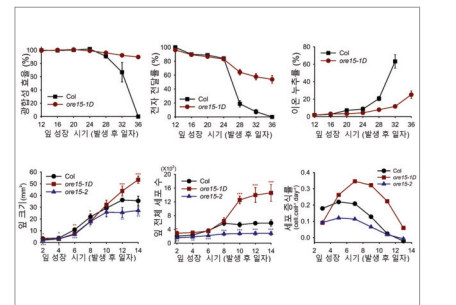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식물 잎 기관에서 시간적으로 분리된 두 발달단계인 '생장과정'과 '노화과정' 간의 분자적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생체 제염제를 이용한 체내 방사성 세슘 제거 모식도 (조완섭 교수)



▲ 풋마름병 발생 억제 효과 관찰을 위한 토마토 근권 미생물군 이식 실험(이선우 교수)



▲ 핵심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식물 세포조직 축진 및 노화과정 분석(김경태 교수)

09 이훈상·최우용·이동규 교수 전국 규모 학회 학술상 수상

동아대학교 교수들은 전국 규모 각종 학회에서 인정받으며 대학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훈상 사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제11회 영산 법사학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영산 법사학 학술상은 법사학 및 고문서 연구자들의 독창적인 연구를 독려하고 법사학 및 고문서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법사학회는 이 교수가 "근현대 이후 한국의 중요 엘리트들을 다수 배출한 향리에 대한 연구로 남다른 업적을 쌓았다."며 "특히 경상도(71개)와 전라도(55개) 군현의 향리가문 연구를 충청도 지역까지 넓혀 우리나라 향리 사회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오래 전부터 근현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한국사회와 한국학계는 조선왕조 양반들의 시각이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때가 많았다."며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시작한 35년의 여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학회지인 '공법학연구'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 중 공법학 발전 기여도와 학문적 가치가 높은 논문을 우수논문 심사선정 위원회에서 엄선, 해마다 1명 내외를 선정해 우수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민간투자사업법의 주요 쟁점'이란 주제의 논문으로 이번 학술상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국책사업에서 잘못된 예비타당성 검사로 매년 수백억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최 교수의 논문이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규 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2018년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재난 예방 및 관리'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는 이 교수는 '예측적 재난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이론적 논의'란 제목의 논문으로 '국가위기관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최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송실대에서 열린 2018년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재난 원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난 예방 시스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기계가 하는 데이터 예측(prediction)과 집단지성을 고려한 인간의 예측(foresight)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측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오른쪽)



▲ 이훈상 사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 '2018 부산광역시 R&D 우수성과' 최우수상을 받은 임선희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10 임선희 교수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들 '부산 R&D 주간' 행사에서 대상·최우수상 수상

'2018 부산 R&D 주간'에서 동아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잇달아 수상했다.

임선희 생명과학과 교수가 '2018 부산광역시 R&D 우수성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술적 우수 R&D 분야에서 임 교수가 수상한 과제명은 '종양 분자 진단 마커 발굴 및 기능 분석'이다.

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동아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연구진이 수행한 이 과제는 암 조직에서 RNA(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자 정보를 매개하고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 관여)를 추출, 전체 RNA의 발현 패턴을 확인한 유전체 연구다. 이는 '암의 크기나 병리적 단계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선 암이 갖는 유전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암의 크기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암의 성질을 이해, 보조적으로 적절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시는 임 교수 연구팀의 성과에 대해 '항암치료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암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는 SCI급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인 'Clinical Cancer Research'에 게재된 것을 비롯해 국립암센터의 우수 논문 선정, 제2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등 눈부신 성과도 거뒀다.

에너지·자원공학과 김지수·김양아·정도현 석사과정생은 '2018 부산R&D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BYI(Busan Young Innovator) 포스터 전시'에서 대상을 받았다.

동아대 팀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석탄회(Coal ash)를 활용한 경량 골재 제작'이란 주제로 석탄회(석탄의 연소와 가스화 과정에서 생기는 잔류물)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자원화에 일조하기 위한 '석탄회 유해성 평가'와 '경량 골재 성능 평가' 연구를 발표, 영광을 안았다.

김양아 석사과정생은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대상을 수상해서 정말 기쁘다. 많은 도움을 주신 차종문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식구들의 응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BYI(Busan Young Innovator) 포스터 전시' 대상을 받은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들

경기니트패션쇼



▲ 전국 대학생 니트 패션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패션디자인학과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바디 남자 대표팀과 조제호 총감독(앞줄 맨오른쪽)

11 패션디자인학과 각종 공모전과 학술대회 맹활약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빼어난 역량을 뽐냈다. 학생들은 '2018 전국 대학생 니트 패션쇼'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타는 쾌거를 이뤘다. 니트 원단을 활용한 창작의상을 제작해 선보인 이번 패션쇼에서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생으로 구성된 팀은 핑거니팅(finger knitting)과 태피스트리(tapestry) 등 포근하고 풍성하며 부피감을 드러낼 수 있는 니트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패션디자인학과와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석사 졸업생 정임주 동문도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thing & Textiles'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해양용 스마트 방수복' 연구를 하고 있는 정 씨가 발표한 논문은 초보 서퍼들의 서핑동작 연습을 위한 모션 인식 기반 해양용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해양용 스마트 방수복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 스마트 의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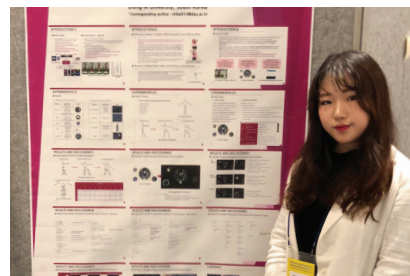
교수들의 성과도 있었다. 박은주 교수와 이신영 교수는 지난해 8월 한국의류산업학회(SFTI)와 포르투갈 의류기술연구센터(CITEVE) 공동주관으로 포르투갈에서 열린 '2018 SFTI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학술대회에서 박은주 교수는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and Scarcity on Purchase Intention for Fashion Products in Social Commerce'를 주제로 'SNS 기반 온라인 패션비즈니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신영 교수는 'Cognition and Eye Tracking of Fashion Design'이라는 주제로 '시선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인지 과정 분석 결과'를 발표해 수상했다.



▲ '우수대학상'을 수상한 제16회 전국대학생패션쇼 무대



▲ 왼쪽부터 박은주, 이신영 교수



▲ 패션디자인학과 학부,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석사 졸업생 정임주 동문

12 카바디·드래곤보트 등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동아인 저력 발휘

동아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주축이 된 카바디 남자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는 기적을 만들었다. 카바디 남자 대표팀엔 주장 이상군(교육대학원 석사 재학)을 비롯 엄태덕·김성렬·김경태 선수 등 교육대학원 출신과 태권도학과 4학년 옥용주 선수도 소속돼 있다. 조제호 감독과 설동상 코치도 동아대 출신인 대표팀은 그야말로 '동아맨'으로 이뤄진 팀이다.

예술체육대학 소속 동아리 '드래곤보트'도 지난해 9월 '제11회 부산광역시장배 드래곤보트대회'에서 일반부 혼성 1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동아대 드래곤보트 동아리는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9명 등 모두 26명이 두 개 팀으로 나눠 참가, '드래곤보트 12인승 500M 일반부' 부문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드래곤보트 동아리는 각종 대회 우승과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2018년 동아대 '최고의 동아리'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13 씨름부 임규완 선수 전국장사씨름대회 역사급 1위 탈환

씨름부 임규완(체육학과 4)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난해 8월 말 열린 '제4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씨름대회' 역사급(105kg급) 1위를 따내며 대학부 정상을 탈환했다. 임 선수는 지난해 상반기 각종 대회에서 2~3위를 차지하는 등 슬럼프를 겪으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예선과 8강 및 4강에서 임 선수는 잡채기와 뒷무릎치기, 끌어치기 등 다양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한 후 결승전에선 한림대 손경락 선수에게 안다리 걸기로 승리를 거뒀다.

▼ 임규완 선수(왼쪽)와 어머니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손길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동아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클린 동아 봉사단’ 발대식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클린 동아 봉사단’이 출범했다. 발대식은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승학캠퍼스 정문 책탑에서 개최됐다. 발대식 후 한석정 총장과 본부보직자들은 총학생회 임원 및 봉사단원 학생들과 함께 1시간 여 학교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동아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원을 모집, 승학캠퍼스 15명과 부민캠퍼스 10명 등 모두 25명을 선발했다. 단원 선발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봉사단원들은 학기 중 공강시간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캠퍼스 내 게시판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실시했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생활화’ 캠페인도 펼치며 환경보호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총학생회 따뜻한 ‘십시일밥’ 봉사

‘함께그린’ 총학생회(회장 김근홍)가 ‘십시일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십시일밥’은 열 사람이 한 손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십시일반’에서 이름을 따온 프로젝트다. 학생들이 승학캠퍼스 내 학생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식권 두 장을 수혜 학우들에게 기부,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재현(경영정보학과 4) 학생은 “봉사활동을 계획할 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는데 생활협동조합 등 많은 곳에서 도움을 줘서 감사했다.”며 “다같이 힘을 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30여 개 대학들이 십시일밥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대학에선 동아대가 유일하다.



외국인유학생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들이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지난해 12월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나눔’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아대 학생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서포터즈 ‘DAILY(데일리)’가 기획한 이번 봉사활동엔 데일리 학생과 한국인 재학생도 함께 참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통해 나눔의 미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 봉사활동에 참가한 타리타(인도네시아, 국제관광학과 1) 학생은 “생각보다 배추 양이 많았지만 정말 즐거워서 피곤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학생들이 만든 김치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됐다. 동아대 국제교류처는 국제교류 서포터즈 데일리를 중심으로 학기마다 봉사활동을 비롯한 문화체험 활동, 학습 교류 및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경동문회 송년의 밤
권홍사·손연호·최영주 회장
각각 1억 원씩 3억 원 쾌척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동문들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잇따라 내놓았다.

권홍사 (주)반도건설 회장과 손연호 (주)경동나비엔 회장, 최영주 (주)팬코 회장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기금으로 나란히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쾌척했다. 권 회장과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18 동아대학교 재경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1972년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주)반도건설을 설립한 권 회장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제13~18대 상공회의소 의원 및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1997부터 2000년까지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시회장, 제23~24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71학번으로 공업경영학을 전공한 손 회장은 글로벌 보일러 기업으로 도약한 (주)경동나비엔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주)경동나비엔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에도 진출해 활발한 해외 수출 활동을 통해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 2017년 업계 최초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최영주 회장은 지난 1963년 경제학과에 입학해 2012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5년 삼원섬유를 창립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주)팬코를 설립, 의류 제조 및 수출전문기업으로서 국내외 섬유산업의 길을 개척했으며 지난 2017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석정 총장
3,000만 원 기부

개교 100주년 대비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 건립'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 한석정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들의 잇단 기부로 성공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석정 총장이 지난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했다. 한 총장은 "지역을 품고 세계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아대를 위해 막강 동문들과 교직원 등 구성원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동아인의 역사와 저력을 알리게 될 이번 캠페인 성공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발전기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동아인이 단결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모두가 푹푹 뭉쳐 동아 10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다.



조흥래 (주)삼흥기업 회장
1억 원 쾌척

조흥래 (주)삼흥기업 회장이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인 조 회장은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2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동아대 경영대학이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첫 주자였던 조 회장은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지난 1993년부터 꾸준히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동문 및 교직원들의 연이은 기부로 성공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또 다시 1억 원을 선뜻 내놨다.

조 회장은 평소 '사람이 힘이다'는 가치관을 갖고 미래 인재를 위한 끊임없는 기부에 나서고 있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업적 등으로 지난 2017년 동아대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던 그는 동아대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발전위원도 맡아 모교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센텀드림월드 등으로 대표되는 (주)삼흥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표 향토기업인으로 자리 잡은 그는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부'라며 "동문들과 교직원, 학생들에게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영대학원 AMP 동문회장단
8,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역대 동문회장이 십시일반, 동아대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8,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AMP동문회장을 역임한 김영식 (재)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24대 동문회장)과 류병송 (주)유림수산 대표이사(32대 동문회장), 남성모 예성산업(주) 대표이사(36대 동문회장), 홍철우 (주)대한금속 대표이사(38대 동문회장), 김종배 (주)정진설비 대표이사(40대 동문회장), 김경호 (주)광진티엘에스 대표이사(42대 동문회장), 황동경 성진산업(주) 대표이사(43대 동문회장), 강세호 FT Marine 대표(44대 동문회장) 등 8명은 지난해 12월 모두 8,000만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AMP동문회장단 모임인 '동경회' 월례회 자리에서 기부 이야기가 나와 즉석에서 8,000만 원을 모았다는 역대 회장들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함께 가야 힘이 생긴다."며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 동문과 대학 모두가 함께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신태갑 교수, 자녀들과 함께 2,000만 원 기부

신태갑 사학과 교수가 자녀들과 함께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중국근대사를 전공하고 지난 1988년부터 동아대 사학과에 재직 중인 신 교수는 그동안 석좌학술원장과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로 근속 30주년을 맞은 신 교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몸담아온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결심해 더 눈길을 끌었다.

신 교수는 "30년간 재직한 동아대에 고마운 마음이 크고, 부족한 제 능력을 높이 사 주신 총장님께도 감사하다."며 "기부를 권유했을 때 자녀들과 아내도 '좋은 일에 쓰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내놓겠다'며 군말 없이 따라왔다."고 밝혔다.



유동훈 석좌교수 1,000만 원 기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출신으로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유동훈 석좌교수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체육과 관광, 홍보 등을 담당하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교수로 부임, 'PR론' 등을 강의하며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 석좌교수는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문 사회와 교직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한다."고 밝혔다.



홍일석 대방인더스트리 대표 1,000만 원 기부

홍일석 대방인더스트리 대표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프리카를 주 무대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홍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표 모임인 '(사)동아비즈니스포럼'의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감사를 맡고 있는 등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법학과 80학번인 홍 대표는 아들(관광경영학과 11학번)과 친누나(사학과 78학번)도 동아대 동문인 그야말로 '동아 가족'의 표상이다.

"법학과 재학 시절 학내 영자신문 'Dong-A Herald(동아헤럴드)' 기자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는 그는 무역회사 생활을 거쳐 사업을 일구며 30년째 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우용·최영익 교수, 학술상 상금 각각 100만 원 기부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익 환경공학과 교수가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 상금 100만 원을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각각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두 교수는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함으로써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지도와 연구, 학문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푸드트럭 운영 수익금 100만 원 기부

제51대 '함께그린 총학생회(회장 김근홍)'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가을 축제(대동제)를 기획하며 동아대 동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부릉부릉 닭꼬치'와 '참참' 등을 초청했고, 총학생회와 동문들이 공동 운영해 생긴 수익금 100만 원을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학에 선뜻 내놨다.



경영대학 DAUist 릴레이 기부 15호까지 이어져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경영대학 다우리스트 기프트(DAUist Gift)' 발전기금 릴레이 12호 기부의 주인공은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였다. 서 대표는 홀로 창업해 만 31년째 산업용 특수 테이프 생산기업인 (주)화인테크놀로지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CEO로, '투명 경영'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기업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무임 (주)용성 대표이사는 경영대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리스트 기프트(DAUist Gift)' 발전기금 릴레이 13호 주자로 기부했다.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생인 김 대표는 부산직접자사와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많은 단체에 기부 활동을 펼치며 '기부 천사'로 불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기부와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 지난 2015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임수복 (주)강림CSP 회장도 경영대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15호 주자로 10년간 1억 원을 약정했다. 지난 2008년 동아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임 회장은 스틸파이프 전문 제조업체인 (주)강림CSP, 유기비료 제조업체인 (주)바이옴, 농업회사법인인 (주)강림자연농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의과대학 기부 릴레이 시작, 발전의 단초 만들다

**김승수 동문회장 시작으로 서덕준·김무현 교수
정동근 학장·외래교수협의회까지 순조롭게 5호 달성**

동아대학교 각 단과대학 차원에서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바람이 일고 있다. 경영대학에 이어 의과대학에서도 동문 및 교수들의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수 의과대학 총동문회장(통영 신세계로병원장)이 대학 발전기금 6,000만 원을 쾌척했다. 김 회장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놨다. 그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큰 모교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 동문회장은 동아대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마쳤다.

뒤이어 서덕준 의예과 생리학교실 교수가 의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해 의과대학 기부 릴레이의 두 번째 주자가 됐다. 서 교수는 동아대 의과대학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한 '의과대학의 산증인'으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 초까지 제16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학과 내과학교실 김무현 교수도 의과대학 릴레이 발전기금 3호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들이 동아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김 교수는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많아 오랫동안 기부를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동참해 의과대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4호와 5호 기부자가 나왔다. 정동근 의과대학장과 조철민 외래교수협의회장은 최근 열린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간담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 동문들에게도 릴레이 기부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제20대 학장으로 취임, 의과대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정 학장은 "대학의 재정여건이 열악해도 좋은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에는 조금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겁 없이 릴레이 기부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큰 바람을 일으켜 100호 기부자 탄생을 목표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현재 540여 명으로 구성된 동아대 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는 의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등에 도움을 주는 선배 의사들의 단체다. 동아대 의대 1기 출신인 조철민 외래교수협의회장(남천 메트로적추병원장)은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싶은 취지로 릴레이 기부에 참여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무 의학과 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올해 2월 정년퇴임한 최병무 의과대학 교수가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병원이 개원한 지난 1990년부터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실에 몸 담아 온 최 교수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그동안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정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늦은 밤까지 열심히 연구하는 후배 교수들이 있어 동아대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LG트윈스 루키' 이정용 야구부 선수, 2,000만 원 기부

지난해 대졸선수 중 유일하게 프로야구 1차 드래프트에서 LG트윈스의 지명을 받아 계약을 완료한 이정용 야구부 선수가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 선수와 아버지 이석봉 씨는 지난해 11월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과 사인볼 등을 전달했다. 이 선수는 "좋은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꼭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야구부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신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돼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52기 원우회 5,000만 원 기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52기 원우회가 대학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52기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조도선 광덕개발(주) 대표이사과 김지혜(스펀지성형외과 뷰티원장)·박경희(성창산업 대표이사)·이순형(경일산전(주) 대표이사) 부회장, 나선석(다원Trade 대표) 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는 '제20회 총장배 동문 골프대회'에서 학교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 모교사랑을 과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동문회, 발전기금 500만 원 전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재학생과 교수, 동문 등 모두 150여 명이 참가해 열린 가운데 동문들이 학과 발전기금 500만 원을 학과에 전달, 그 의미를 더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난 1987년 10월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상당수 동문은 전국의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포털, 광고회사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동아 100년 동행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캠페인 비전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와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의 도약

동아인재 양성

동아 지식허브 조성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캠페인 개요

구분	항목
동아인재 양성기금	교육과정 개편 / E-러닝시스템 구축
	우수교원 확보 / 교·직원 역량개발
	국제화 사업 / 해외교육 확대
	동아인재양성 장학기금
동아 지식허브 조성기금	문화사업 / 지역민 초청행사
	산학협력 / 미래 전망분야 육성사업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기금	미래교육관 건립
	중앙광장 조성

캠페인 모금계획 (~202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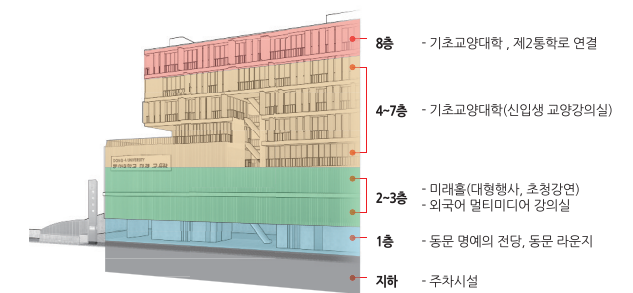
목표 모금액	300억 원 (동문, 교·직원, 주요 협력기관 및 개인후원자 대상 모금)
--------	--

※ 캠페인 모금액 외 교비 및 국책사업 예산 추가투입(약 300억 원 규모)

주요사업

- 건축개요**
- 총사업비 : 약 150억 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8층
 - 건축면적 : 1,000㎡(약 300평)
 - 연 면 적 : 8,000㎡(약 2,400평)
 - 사업기간 : 약 30개월(2020년 준공 목표)

- 주요시설**
- 동문 명예의 전당(로비)
 - 기초교양대학 강의실(신입생 교양강의)
 - 미래홀(대형 행사 및 지역민 초청강의)
 - 외국어 멀티미디어 강의실, 스터디룸
 - 글로벌 카페라운지



※ 미래교육관 건립 투시도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p>휴대폰 카메라로 읽어주시면 간편하게 약정 가능합니다.</p>
온라인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 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신규 후원의 집 소개

제181호 진선

최고의 해물찜살 누룽지탕을 맛볼 수 있는 중화요리 레스토랑. 송도 압남 공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 식사와 함께 천혜의 바다 풍경과 해상 케이블카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싱싱한 채소의 환상적인 만남을 즐겨보세요.

부산 서구 압남공원로 185 051-240-4538

제182호 이모식당

점심시간 기다림을 견뎌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동아대학교 졸업생,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고등학생들조차 이 식당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전통을 자랑합니다. 맛있는 밀반찬과 김치찌개, 곱창전골, 두루 치기정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대로 550번길 16 051-240-4538

제183호 건양플라워

축하화환, 근조화환, 동양관, 서양관 등 기쁨을 축하하거나 슬픔을 나눌 때 신속히 배달해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건양플라워는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19 010-3874-9190

제184호 카페이네이티드

직접 로스팅하고 내린 신선한 커피를 앞세운 곳. 수준 높은 음료뿐만 아니라 독립서점 '반달복숭아', 기프트샵 '백산20'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쇼핑, 북토크, 네트워킹 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소모임 등 카페를 넘어선 공간을 지향합니다.

부산 중구 백산길 20 타워힐호텔 1층 051-250-6119

제185호 고려정

갈빗살, 육회, 갈매기살이 맛있기로 평평이 나있는 다대동 맛집.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질 좋은 고기뿐만 아니라 쉐프 샐러드바도 유명해 오랜 단골들이 많은 이곳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나들이의 화룡점정을 찍어 보세요.

부산 사하구 다대로381번길 60 051-263-7001

제186호 두드림(하나투어)

하나투어 공식 대리점. 14년간 하나투어 본사에서 근무한 우리 대학 동문(관광경영학과 92)이 직접 운영하는 여행사입니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 단순히 대리점 혜택을 넘어선 최고의 서비스 만족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부산진구 동천로 92 NC 백화점 1층 051-794-7119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nwaxe@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전화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기부안내

동아의 72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당 1만 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을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방문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에게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방법

전화·방문·온라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